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09. 20(月)



**경제이슈**

8월 美 생산자 물가 2개월째 상승세  
8월 고용시장 회복세 유지, 청년 고용 개선은 부진

**경영노트**

조직을 움직이게 만드는 CEO의 기술

**차이나 리포트**

중국 기업 인수합병 가속화

**저널브리프**

퀀스타운, 어드벤처 투어리즘을 끌어안다

**洗心錄**

김탁구, 구글, 그리고 착한 경영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 8월 美 생산자 물가 2개월째 상승세

- 미국 노동부(16일)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달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감
  - PPI 변화 추이 :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였고 8월 역시 전월대비 0.4% 상승하며 상승세
  - 근원 PPI :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대비 0.1% 소폭 상승
  - 식품 및 에너지 가격 : 식품가격은 전월대비 -0.3% 하락하였으나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2.2%로 높은 상승폭을 보임
- 휘발유 가격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의 큰 폭 상승이 생산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감소될 전망

□ 8월 고용시장 회복세 유지, 청년 고용 개선은 부진

- 8월 중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고 실업률도 감소하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간 반면, 청년층의 고용난은 지속되고 있음
  - 취업자 및 실업자 수 : 취업자는 2,40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6만 명 증가하였으며 실업자는 83.1만 명으로 7.4만 명 감소
  - 고용률 및 실업률 :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0.4%p 하락한 3.3%를 기록,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
  - 청년 고용 동향 : 청년실업률은 7.0%로 7월보다 1.2%p 하락하여 소폭 개선되었으나 고용률이 40.3%로 1.6%p 하락하여 여전히 청년 고용난 해소는 부진
  - 고용지표 개선 배경 : 수출 및 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로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경기호조세 유지와 기저효과 등으로 실업자는 감소
- 제조업평균가동률이 최고 수준이며 투자와 민간소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9월에도 민간부문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조직을 움직이게 만드는 CEO의 기술<sup>1)</sup>

- 리더에게는 직원들로부터 실제 성과보다 더 큰 칭찬과 비난이 집중되며, CEO는 이러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
  - 리더가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15%에 불과하지만 직원들은 실적에 대한 책임의 50% 이상을 리더에게 전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큼
  - CEO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직원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업무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훈련과 습득이 요구됨
- CEO는 조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자신감의 표출, 확실한 태도, 칭찬의 기술, 책임지는 모습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함

< CEO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

	내 용
자신감을 보여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는 사실 자신감이 없는 사안이라도 조직에서 가장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li> <li>· 지나친 자신감으로도 유명한 인텔의 창업자 앤디 그로브는 보스의 자신감이 직원들에게 신뢰를 준다고 조언</li> </ul>
망설이지마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유부단한 태도와 애매모호한 표현은 부족한 리더의 공통점이며, 이후 잘못된 판단이 되더라도 신속한 결정이 필요</li> <li>· ‘예, 아니오, 모름’으로 확실하게 결정하고 답변하는 리더십이 직원들에게 안도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li> </ul>
칭찬을 주고받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는 자신을 칭찬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을 돌리는 것을 통해 조직 전체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음</li> <li>· 세계 최고의 디자인 기업으로 꼽히는 IDEO의 창업자 데이비드 켈리는 칭찬을 주고받는 기술의 달인임</li> </ul>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직원보다는 자신에게 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li> <li>· 실제 미국 기업들의 25년간 주가 추이 분석한 결과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는 CEO의 기업 주가가 더 높게 나타남</li> </ul>

- 이밖에 리더는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거나 자신을 약간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음
  -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과 같은 심리적 안전장치나 권위적으로만 보이는 리더의 작은 몸동작 등은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됨

1) 본 자료는 ‘Why good bosses tune in to their people(McKinsey Quarterly, 2010. 8)’, ‘CEO, 튜닝기술부터 익혀라(아주경제, 2010.9)’를 요약 정리함

□ 중국 기업 인수합병 가속화

- (개요) 9월 6일 중국 국무원은 6대 산업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 지도의 견』을 제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산업진흥계획에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한 상황임
  - 이러한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기계 제조, 알루미늄, 희토류 등 6대 산업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을 재추진함
- (원칙) 금번 조치의 목적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것임
  -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이해를 타파하기 위해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지역적, 국가적 제한을 폐지
  - 금번 조치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 있어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고취하고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
  - 또한 중국 정부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프라, 공공사업, 금융서비스 등 독점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고 민간 자본의 출자 제한을 완화
- (구체 방안)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 간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제, 금융 방면의 지원을 확대
  - 중국 정부는 기업 인수합병 관련 세제 우대 방안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자산가치평가, 채무조정, 자산이전 등을 촉진
  -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원 사태에 대비해 정부 재정으로 해고 인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재취업을 지원
  - 또한 인수합병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관련 기업의 증자, 채권 및 전환사채 발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 (시사점) 중국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독점 분야에 대한 개방 범위와 민간·외자에 대한 진입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퀸스타운, 어드벤처 투어리즘을 끌어안다<sup>2)</sup>

- 퀸스타운은 인구 1만 7천 명의 뉴질랜드의 소도시이지만 2009년 기준 연간 방문객은 170만 명에 이룸
  - 이러한 저력은 어드벤처 투어리즘(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단적 모험을 즐기는 관광문화)이라는 차별화된 컨셉트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됨
- 퀸스타운의 성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음

< 퀸스타운의 성공 요인 >

요 인	내 용
특징있는 지역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퀸스타운은 지형적 특수성을 활용해 익스트림 스포츠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브랜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퀸스타운은 깎아지른 듯한 암벽, 광활한 자연, 4면이 둘러싸인 바다를 가지고 있음</li> <li>- 이를 활용하여 번지점프, 제트보팅, 화이트워터 래프팅, 스카이다이빙 등 그야말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개발, 활성화시켰음</li> </ul> </li> <li>•(결과) 세계 각지에서 자극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매년 꾸준히 퀸스타운을 찾고 있음</li> </ul>
기업가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퀸스타운에는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지역 주민의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질랜드인 해킷(Hackett)은 남태평양 원주민들의 성인식에서 번지점프를 착안, 라텍스 고무로 된 튼튼한 번지줄을 개발하고 번지점프의 대중화를 선도하였음</li> <li>- 멜홉 형제는 1970년 길고 좁아 물살이 빠르고 위험한 쇼트오버 협곡을 따라 내려가는 제트보팅 코스를 개발하였음</li> </ul> </li> <li>•(결과) 많은 뉴질랜드 사업가들이 퀸스타운에서 어드벤처 투어리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li> </ul>
협업을 통한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퀸스타운은 서로 다른 분야 간의 협력을 통해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퀸스타운의 레포츠 기업들은 어드벤처 투어리즘 마케팅 전문회사인 퀸스타운 어드벤처 그룹을 공동 설립하고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관광패키지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음</li> <li>- 퀸스타운 어드벤처 그룹은 각 기업의 대표상품들을 모아 저렴한 가격의 관광 패키지를 구성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li> </ul> </li> <li>•(결과) 참여기업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공동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음</li> </ul>

2) “풀뿌리 기업가정신, 세계를 향해 번지점프를 하다”(Dong-a Business Review, 2010.8.1) 참조

## □ 김탁구, 구글, 그리고 착한 경영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가 지난 주 시청률 50%를 기록하며 인기리에 끝났다. 주인공 김탁구는 너무 착하다. 괴롭히고 상처를 줘도 보복하기보다는 허탈한 웃음이나 눈물로 참아내면서 최고의 제빵기술자로 성장한다. “빵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식품에 불안해하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가장 배부른 빵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가장 재미있는 빵은 새로운 맛과 제품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려웠던 7~80년대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착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대리만족을 통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구글은 1996년 스탠포드 대학원에 재학 중인 2명의 엔지니어가 설립한 벤처기업으로서, 뛰어난 정보검색 속도와 정확한 검색품질로 짧은 기간에 기존 업체들을 추월했다. 1년 매출액이 20조 원을 넘어섰고, 시가총액은 2010년 8월 현재 약 170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1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격하고 있다.

구글의 사훈은 ‘사악하지 말자’(Don't be Evil)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일념으로 지식과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착한 목표에 충실했을 뿐 돈에 좌우되지 않았다.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자리에 큼지막한 배너광고를 달아주던 과거의 인터넷 사이트들과 달리 구글은 찾는 고객이 많고 검색순위가 높은 콘텐츠일수록 가장 좋은 자리에 올려준다는 착한 경영의 원칙과 공정성을 끝까지 지켰다.

2010년 하반기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이다.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착한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착한 경영은 성공하지 못한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편견을 버려도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친환경활동과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앞선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장회사 평균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착한 경영이 성공한다는 스토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미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 엘리노어 루즈벨트 -